

목장교회 나눔지

2019. 5. 10.주간

목 목장원들을 환영_얼음깨기(Ice-breaking)(10분)

· 자녀 중 한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자녀가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 해 봅시다.

장 장마비와 같은 찬양과 경배(5분)

찬
송
가
5
6
4
장

1. 예수께서 오실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
김 없이 다 찾으시리
2.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 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
3.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 참 하면 보배로다
[후렴] 셋별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 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찬
송
가
1
9
9
장

1.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들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2.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3.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4. 그 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
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후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 주시던 재미 있게 들던
말 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히 사랑합니다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40분)

잠언 22장 6절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

A.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B. 성경말씀을 깊이 읽어봅시다.

* **신6:4-7**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 **엡6:1-4**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 **골로새서3:21**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절
과
내
용

C. 말씀 요약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지니게 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도서가 출판되었다. 이 책에 따르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들은 현 세대보다 신앙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불과 2-30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한 반에 70명 중의 50명의 학생들은 교회를 다녔다. 그러나 지금은 30명 중의 10명 미만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인구 감소와 맞물려 신앙 인구 특히 학생 감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어린이주일을 맞아 학생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의 교회의 미래는 소망이 없다. 우리 자녀세대는 단지 밥을 잘 먹고 살기를 바란다면, 세상의 부모와 다를 것이 없다.

많은 경우,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단지 교회 다니게 하는데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모의 책무는 단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부모에게는 거듭남이 2번 필요하다고 한다. 한번은 부모 자신의 거듭남이고, 다른 한 번은 자녀의 거듭남이다.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겠다는 결심 의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없이는 공부 잘 하는 것, 돈 잘 버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믿는 부모가 여길 수 있다. 차츰 복음과 십자가, 구원은 그 가치가 소멸되는 중에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기를 차치하면 안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복음을 전달하는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란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 대해 교육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옆에 신명기 6장 4-7절, 에베소서 6장 1-4절, 골로새서 3장 21절을 기재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고 있는가? 믿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신의 말만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왜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정당화한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이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눈물로, 기도 로 양육했는가? 만약 당신이 자녀를 혹은 손주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린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차일드child 단어 스펠링 한 자 한 자를 통해 부모의 역할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C.H.I.L.D.

C는 무엇일까? 그것은 크라이스트 지저스Christ Jesus 바로 구주 예수님을 뜻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한다. 요14:6은 말씀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삶의 중심 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시다. 또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 중심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관계하도록, 삶의 목적과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H는 무엇인가? 홀리니스Holyness 즉 거룩함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16절은 말씀한다. “오 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므로 모든 사람은 그 거룩을 닮아가야 한다. 오늘 거룩함에 대한 보다 직 접적인 의미는 정직함이다. 요즈음은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온

다. 깨끗하고 청량해 보이지만, 뒤로는 정직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파괴된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깨끗하라. 정직하라.” 정직하지 못함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태평양 바다 위에서, 뛰어난 수영 실력은 목숨을 살리는 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잘 버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믿음의 사람은 믿는 자의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거룩성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을 심자.

L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스트럭션instruction 즉 교육이다. 어떤 교육인가? 예수에 대해 가르치고, 거룩하게 양육하기 위한 성경 교육이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이다. 그런데 팔리긴 하는데 읽지 않는 책이 또 성경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디모데후서는 3장 15-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다. 즉 바르게 하고, 책망하며, 의로 교육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에 성경을 두고 다른 것으로 교육하는 것 아닌가? 성경이 최고의 자녀 양육서인 것을 안다면 아이들과 함께 매일 매일 성경 이야기를 읽고 묵상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매뉴얼이 성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교훈을 나누어 보자. 자녀들은 이미 의롭고, 바르고, 능력 있게 살게 되어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 앞에 있게 해야 한다. “나는 이미 끝났어요. 자녀들이 다 컸어요”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나누라.

L은 러브Love이고 D는 디스플린Disciple이다. 사랑과 훈련의 뜻이 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다. 믿는 부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씀하고 있다. “또 아버지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지에 대해 가르쳐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기도이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교회학자는 교회를 아이들이 떠나는 이유 중 첫 번째로 신앙 교육을 교회학교에만 내어 맡기는 데 있다고 보았다. 부모로부터 삶에서 묻어나는 신앙 교육, 자녀에게 성경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교훈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청소년 시기만 되면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신앙 교육 부모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눅 23:28)고 하셨다. 자녀를 이 세상에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가며, 이 세대의 위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기고 나가게 할 것인가? 공부 잘 한다고, 능력 있다고 방심하지 말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은 결코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아서는 이겨낼 수 없다. 요한1서 3:18은 말씀한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유산만을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라. 그것 없어도 사람은 잘 살게 되어 있다. 더 중요한 것, 즉 믿음을 물려주라. 어린이날, 어린이주일이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틀림없이 게임기, 노트북, 자동차.. 등등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클 수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선물하자. 예수님이 중심되는 인생은 주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D. 마음에 새겨봅시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한시도 잊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양과 훈계를 바로 해야 한다. 어떤 것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할 것인지 작성해보자.

①

②

③

회 회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15분)

- 봄맞이 대심방을 위하여
- 육신과 영적 연합함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 교회사역을 위하여: 중보기도, 말씀 묵상, 통독학교, 일대일제자훈련 등.
- 담임목사님을 위하여: 말씀의 기름부으심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모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10분)

[교회 광고]

- ① 큐티 동역자 100명 세우기 II 올 한 해 100명의 큐티동역자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모든 목장에서는 큐티를 구입하여 나누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목원들을 가입하도록 안내해주시고, 매일 새벽 묵상시 1-2줄 답글을 달아 서로 독려하는 일에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봄맞이대심방 II 모든 목장이 힘써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부부세미나 II 부부세미나가 12일(주일) 오후 2시 예배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주시고, 특히 젊은 부부 가정 자녀 돌보는 일(유치부실)에 섬길 수 있는 분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5분) - 주기도문

[목장별 사역메모]